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6주일(순교자 성일)
제30권 44호(다혜) 2010-9-26

[묵상]



사람들을 안고 있는 성조 아브라함
<14세기, 채색삽화, 그라카니카 정교회수도원, 세르비아>

부자는 살아서 좋은 것들을 받았기에
죽어서 고초를 겪어야만 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기에
하늘나라에서 위로를 받아야만 한다는
단순흑백논리가 통하는 하늘나라인가요?

라자로는 부자에게
특별한 동냥을 하지도 않았습디다.
개보다 나은 대접을 받으며
그저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을 뿐입니다.
라자로에게 그것은 생명이지만
부자에게 있어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식탁에서 떨어진 것을
대문 앞까지 옮겨 놓는 몇 걸음.

하늘나라는
부자 지옥, 거지 천국
이런 단순흑백논리가 통하는 곳이 아니라,
단 몇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관심으로도
모두를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랑의 논리가 통하는 나라입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병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제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제주) 울뜨레아 (4제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작수달 4번째 토요일) 베톤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제주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제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펴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전승유 시몬, 김종호, 정원교 요한
특전미사	(생)민석준 토마스 & 영준 마르코, 문 바티스타 수녀
주 일 낮 미사	(연)박덕기 카타리나, 김몽돌 요셉, 이은완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김인영 베드로, 이현호 요한, 서인수 요셉, 황 시메온, 김동욱 & 김정숙, 김형태 야고보, 엄은설 도로테오 (생)이규상 클레멘스 & 홍승현 베로니카 가정, 유우학레 안나, 홍준호 프란치스코, 정학순 발바라, 김덕원 아가비도, 김용식 루카, 박점례 막달레나, 모효숙 클라라, 이형삼, 변혜경 올리아나, 이혜숙, 남가주여성 제31차 꾸르실료 수료자와 봉사자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아모스 예언서(Amos) 6,1-4-7

화답송 ㉠내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주시네.㉠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주님은 교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제 2독서 티모테오 1서(1 Timothy) 6,11-16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네.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졌네.㉠

복 음 루카(Luke) 16,19-31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45	214
봉헌	378	175
성체	279	287
파견	339	345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신성 불가침한 인간 생명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살인자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1요한 3,15)

성서가 아닌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교 문헌인 디다케가 보여 주듯이 초기부터 교회의 살아있는 성전(聖傳)은 "살인하지 못한다."는 이 계명을 단정적으로 거듭 말한다.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죽음의 길이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가르침의 훈계를 따라서, 살인하지 말아라. 낙태하여 아기를 죽이지 말며 일단 태어난 아기를 죽여서는 안된다. 죽음의 길은 이렇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지 않으며,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들의 아이들을 죽이고, 낙태를 자행함으로써 하느님의 피조물들을 소멸시킨다. 그들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내몰며, 고통받는 사람을 억압한다. 그들은 부자를 옹호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불의하게 판단한다. 그들은 모든 악으로 가득 차있다. 오! 아들이아, 결코 이 모든 죄악들을 가까이하지 말도록 하여라!"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의 전승은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의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가르쳐왔다. 초기 몇 세기에 살인은 배교와 간음과 함께 세 가지 가장 중대한 죄의 하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회개하는 살인자가 용서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대중 앞에서 특히 무겁고 오랜 공개적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55). 하느님의 모상을 간직하고 있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 특히 중대한 죄라는 사실은 놀라운 것도 아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적인 경우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의 계명이 금지하고 명하는 것을 더 완전하고 깊이 깨닫기 위한 성찰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실제로 하느님의 율법이 제시하는 가치들이 정말 이율배반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는 예컨대 정당방위와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권리와 타인의 생명을 해칠 수 없다는 의무를 실제로 조화시키기가 어렵다. 다른 것들에 못지 않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와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자기 방어에 진정한 권리의 기초임은 분명하다. 구약에서 선포되고 예수께서 확정하신 이웃 사랑의 계명 자체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마르 12,31)는 비교의 근거인 자기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생명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결핍 때문에 자기 방어에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러한 포기는 오직, 복음의 행복한 사람들의 정신에 따라(마태 5,38-40 참조) 자기애를 근본적 헌신으로 심화하고 변화시키는 영웅적인 애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계속)

행복하여라, 부자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대인들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 확실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였다.”(창세 13,2)고 창세기의 저자들은 강조한 것은 아닐까요? 또한 기브온에서 제사를 바치다가 잠이 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통치할 지혜와 함께 부와 명예와 장수를 약속해주셨습니다.(1열왕 3장 참조).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린 부와 명예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기를 쓰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 부자들을 비난할 이유도 없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약간의 잘못을 저질렀다 해서 꼭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실제로 서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가난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아모스 예언자의 말씀은 웬지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줍니다.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아모 6,1). 그들이 불행한 이유는, 자신들은 온갖 사치를 누리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기”(아모 6,6) 때문입니다.

아모스 예언자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서 부자(富者)가 심판을 받은 반면에 빈자(貧者) 라자로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심판을 받은 것이라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좌파’ 혹은 ‘빨갱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듯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사유 재산권’을 부인한 ‘폭탄 발언’을 하신 셈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부자가 심판을 받은 것은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모세와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루카 16,29 참조). “모세와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란 다름 아니라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레위 19,18; 루카 10,27)라는 가르침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부자가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게 된 이유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위의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과 능력과 시간을 나누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기준이 부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는 소돔이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돔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아브라함의 따뜻한 행동(창세 18장 참조)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들에게 비난한 적이 있다면, 혹시 이런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거부하는 행동은 아닐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자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나눠 줄 것이 남들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 사제 평생교육원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윤희 스테파니아	신덕례 데레사	최진수 예우세비오
제1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황지영 안젤라	이영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희자 마리아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례 데레사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박혜경 레나타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사목회 임원 연수

- 일시 : 오늘 주일(26일) 오후 1시~5시, 강당
- 대상 : 회장단, 각 분과위원장 및 위원들

◆ 구역, 반 봉사자 연수

- 일시 : 10월3일(주일) 오후 1시~3시, 강당
- 구역장, 반장 연수 겸 피정이니 꼭 참석하기 바랍니다.

◆ 성 빈첸시오 사제 기념일 불우이웃돕기 행사 및 미사

본당 빈첸시오회가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 기념일(9월27일, 월)을 맞아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 일시 : 오늘 주일(26일) 친교자리 점심 및 홈메이드 김치 판매
- 미사 : 9월27일(월) 오후 6시, 성전
- 활동회원, 명예회원 및 홈리스 봉사자들 그리고 앞으로 명예회원에 관심있는 교우들도 초대합니다. 미사후 친교장에서 저녁식사가 있습니다.
- 문의 : 박흥룡 요셉 빈첸시오 회장 ☎(310)283-5879

◆ 남가주 제31차 여성 꾸르실료 수료자 환영 울뜨레아

- 일시 : 오늘 주일(26일) 오후 8시 강당
- 수료자 : 윤정옥 실비아, 이호미 엘리사벳, 김진희 콜롬바, 김미현 크리스틴 * 봉사자 : 엄혜은 도로테아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울뜨레아 간사 ☎(310)749-0276

◆ 백삼위 M.E.가족 기금모금 음식 판매

- 일시 : 10월2일(토) 특전미사, 3일(주일) 미사 전후
- 메뉴 : 장조림, 오징어채볶음, 콩자반, 오아장아찌, 멸치볶음, 무말랭이, 떡볶이, 녹두전, 돼지족발, 막걸리 등
- 문의 : 본당 ME대표부부 김성현 유스티노 & 루치아 부부 ☎(310)347-1665

◆ 전례분과 미사 해설자 및 독서자 교육

- 일시 : 10월3일(주일) 오후 1시, 성전
- 새 신청자도 모두 참석 바랍니다.
- * 문의 : 전례분과장 윤희동 안토니오 ☎(310)365-7871

♡ 혼인 공시 ♡

- 혼배 예정자 : 손세호 시몬 & 김선남 레나타
- 부모님 성함 : 손희성 노렌조 & 손명복 그라시아
김정옥 & 이월순
- 일시 : 10월9일(토) 오전 11시, 백삼위 한인성당
- 리셉션 : 혼배미사 직후 본당 친교장
- 위의 사람이 혼인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주임신부님께 알려주십시오.

◆ 안나/요셉회 가을 온천 관광

- 일시, 장소 : 10월19일(화), 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출발 : 당일 오전 7시30분 성당 주차장
- 대상 : 55세 이상 형제 자매님들(55명 선착순)
- 회비 : 교우 \$20, 외부인 \$30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겹옷, 타올, 샌들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안나회 총무 ☎(310)738-4387

◆ 소년 소녀 레지오 단원 모집

- 대상 : 중고등학교 학생들
- 자녀들이 레지오 활동을 통하여 본인의 성화를 이루며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와 신앙활동을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최기남 야고보 꾸리아 단장 ☎(310)569-3940

◆ 서예반 제2기 회원을 초대합니다.

- 시간 : 매주 주일미사 후 2층 유아실에서 습작
- 강사 : 일호 박태홍 선생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백삼위 성당 "청소년 오케스트라(가칭)" 단원 모집

- 대상 : 5학년~12학년 남녀 학생
- 자격 : 오케스트라에 편성된 악기 연주가능 학생(초보가능)
- 문의 : 김정화 소화테레사 ☎(310)597-2729
김 용 스테파노 ☎(310)926-2248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9월26일(주일) : 빈첸시오(치킨테리아키 \$4)
- 10월3일(주일) : M.E.(전교우에게 배추국 무료대접)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정	김관기	김영정	김용	김원호	김준호
	김철민	나경흠	노새미	류태우	박기돈	박영룡
	송준규	신경훈	엄세종	육근주	윤석구	이경용
	이귀란	이근태	이영석	이용식	이현주	이호세
	장수창	정상문	조윤영	주영석	최금옥	최미열
	최원석	최재은	최진수	최현찬	한연만	한혁수
	홍선자	이크리스	송마이클			
	합계 : \$3,540					
미사헌금 : \$2,810.30						

성전헌금	강숙정	김관기	김용	김원호	김준호	김철민
	나경흠	노새미	박기돈	박영룡	신경훈	엄세종
	이경용	이귀란	이근태	이영석	이용식	이일길
	이현주	이호세	장수창	정상문	최미열	최원석
	최재은	최진수	최현찬	한연만	한혁수	
	합계 : \$2,055					
감사헌금 : 이인석 정열모 한남체인 기부금 : \$290						

◆ 미주 가톨릭 신문 홍보

- 일시 : 오늘 주일(25일 특전미사, 26일 주일미사)
- 가톨릭신문 미주지사장 이상재 가스톨 신부님께서 홍보차 방문, 본당 신부님과 함께 미사를 집전하십니다.
- 교우들의 많은 구독신청을 바랍니다.

◆ 본당 비품은 우리 모두의 것, 관리를 잘 합시다.

주일학교/한국학교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교실의 책상과 의자는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아주시고, 교실사용 후 책상은 원래 놓여있던 모양대로 제자리에 놓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주일학교 수업시간 : 주일 오전 10시30분~11시45분

* 한국학교 수업시간 : 주일 낮 12시~오후 3시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새학기 등록 서두르세요.

아직 새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주일미사 전후 현관에 마련된 접수처에 서둘러 마치기 바랍니다.

(Late Fee \$10 추가)

● 문의 : 주일학교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한국학교 이해레나 교장 ☎(310)347~8765

남가주 소식

◆ 제2기 면형강학회 모집

- 강학내용/과정 : 매월 2회, 2년 과정. 한국천주교회사와 미국 교회사를 중심으로 민족의 구원사와 영성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성지순례를 통해 신앙을 쇄신, 영성을 심화합니다.
- 강학반 : 주일반 매주 일요일 오후 2시~6시(19일 개강)
주중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6시(21일 개강)
- 회비 : 한 학기당 \$60
- 강학장소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미주지부원 내 한국순교자
- 명성센터(16276 California Av. Bellflower, CA 90706)
- 문의 : ☎(562)461-8100

◆ 가톨릭청년 만남의 행사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 일시 : 10월9일(토) 오후 5시~10시
- 대상 : 만 25세 이상 미혼 가톨릭 청년 남녀 각 50명
- 장소 : 성 토마스 성당(412 Crescent Way Anaheim)
- 회비 : \$50(저녁식사, 선물, 재미있는 이벤트 준비)
- 문의 : 박해열 시몬 ☎(213)-2052

◆ 성 마태오 성당 성전전립 기금마련 현유복 신부님 작품전

- 일시 : 10월22일(금)~28(목)
- 개막 리셉션 : 22일 오후 6시~9시
- 장소 : Lee & Lee 갤러리(3130 Wilshire Blvd #502, LA)
- 문의 : 성 마태오 성당 사무실 ☎(818)951-0879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상임위 연수 및 9월회의	오후 1시~5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1	변해경 율리아나	이순자 비비안나 834-8856 9/10(금) 오후 7시 성당
	2	한창주 요아킴	민안나, 석안젤라 530-7702 9/11(토) 오후 7시 성당
	3	문지숙 엘리사벳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9/16(목) 오후 8시
	4	정종미 클라라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테로니카	1	이진향 아네스	김우용 시몬 (213)369-0288 9/17(금) 오후 7시
	2	아크리스 아가토	윤박오로 & 실비아 316-7819 9/11(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방미숙 마리아 720-2876 9/11(토) 오전 10시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1	이명자 마가렛	이명자 마가렛 433-9075 9/17(금) 오후 7시
	2	이경수 헬레나	박희자 마리아 972-9193 9/8(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 크리스티나	이현창 야고보 626-7348 9/18(토) 오후 6시
	4	이정훈 안셀모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1/2	조화숙 안젤라	최미열 클라라 895-8624 9/10(금) 오후 7시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1/2	박해경 레나타	조소영 수산나 808-5005 9/11(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김옥보 안나 518-1736 9/8(수)
P. V. 김명재 아가다	1	남경희 베네딕타	최진수 에우세비오 377-0345 9/10(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배진영 프란치스코 377-2228 9/10(토)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허정자 리타 377-3820 9/17(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9/14(화) 오전 10시30분

순교자현양 특강

“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깨달으십시오.”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위원장 최창화 본시놀)는 순교자 성월을 맞아 9일과 16일, 30일 오후 2~4시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명동성당에서 '순교자현양 특강'(9일 두봉 주교, 16일 김성태 신부, 30일 이한택 주교)을 열고 있다. 특히 이번 특강은 103위 성인들의 순교정신을 본받고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은 특강 요약이다.



〈명동 성당에서 순교자 현양 특강을 하는 드봉 주교〉

“ 주님과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자리,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일까요?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살다보면 겪게 되는 '우연한 일'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믿음과 깨달음'에 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순교자들 역시 믿음뿐 아니라 주님을 깨달으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주님을 체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연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등 믿음에 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중의 믿음은 깨달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깨닫겠느냐' 등의 말씀도 하십니다.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성숙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 안정된 믿음입니다. 순교자들도 역시 믿음을 넘어 깨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어도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깨달음. 우리는 우연한 일을 통해 주님을 체험합니다. 우연한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작은 일기기에 남에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바로 '주님의 손길'입니다. 사람들은 우연한 일에 대해 신앙의 체험이라고 믿는다고보다 꿈을 꾸다던가, 무엇이 들렸다던가, 보였다고 하는 일에 흔들리고 믿음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통일을 보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체험이자 깨달음입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과학적으로 생각해볼 때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연은 '표가 잘 나지 않는 하느님의 평복 차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 주교 옷을 입고 쓰러진 할아버지를 돌봐드린다면 신문에 날 것입니다. 하지만 평복을 입고 할아버지를 도와드린다면 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연한 것은 하느님이 이처럼 전부 마련해주시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그 원인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느님의 평복차림. 하느님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우연한 일을 통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줍니다. 늘 감싸주시며 하나하나를 이끌어주십니다. 눈 뜨기만 하면 평복 차림의 하느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선배 순교자들도 이러한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순교자들처럼 우리도 신앙에 관해 깨달아봅시다. 뜻밖에 일어난 고마운 일들과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도 유심히 살펴봅시다. '신앙의 눈'을 뜨고 그 눈으로 바라보며 깨달으십시오. 바로 '주님의 손길'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뭐든지 감사를 드리십시오. 주님과 나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드봉 주교<전 안동 교구장>